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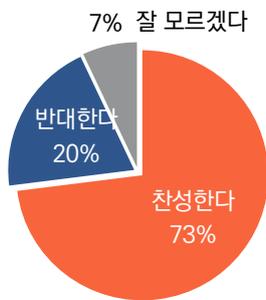
1. 위드코로나에 대한 국민 인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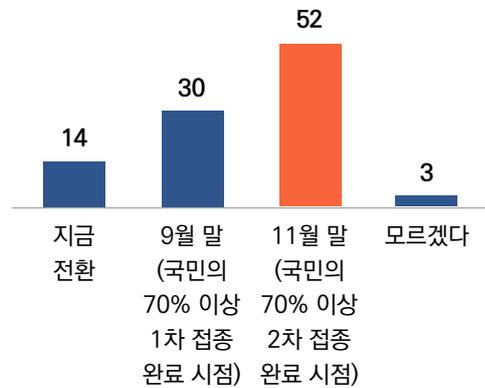
우리 국민, 위드코로나 전환 시점 ‘11월 말이 적절하다’는 의견 우세!

-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최근 발표한 ‘제 6차 코로나19 대국민 인식 조사’(8/30~9/1조사) 결과에 따르면, 정부의 방역 정책을 위드코로나(일상 속 코로나)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의 73%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위드코로나로의 적절한 전환 시점(찬성자 대상)은 ‘11월 말 국민의 70% 이상 2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’이 52%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.
- 이처럼 위드코로나 전환 시점을 11월 말로 보는 국민 인식이 높는데, 정부 정책이 국민 인식과 동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가정하면, 교회에서도 12월부터 어느 정도 회복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.

[그림] 방역 정책의 위드코로나(일상 속 코로나) 전환 찬반



[그림] 위드코로나 적절한 전환 시점(찬성자 대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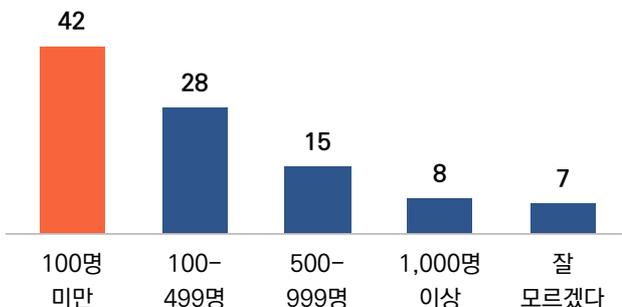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, '제 6차 코로나19 대국민 인식 조사', 2021.09.07.(전국 만18세 이상 일반국민, 1000명, 온라인/모바일조사, 2021.08.30.-09.01)

● 국민의 42%,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평균 100명 미만일 때 일상 유지 가능!

- 일상 유지가 가능한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를 질문했는데, 하루 평균 ‘100명 미만’ 42%, ‘100-499명’ 28%, ‘1,000명-4,999명’ 4%로, 국민들은 하루 100명 미만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일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일상 유지가 가능한 하루 확진자 규모



*자료 출처 :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, '제 6차 코로나19 대국민 인식 조사', 2021.09.07.(전국 만18세 이상 일반국민, 1000명, 온라인/모바일조사, 2021.08.30.-09.01)